

삼국

4세기에 들어온 불교는 지배층의 후원을 받아 발전하며 고대 문화를 꽃피웠다. 대표인 불교 미술 작품으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있다.

고구려는 북방의 기상과 역동성이 드러나는, 화려한 색상의 고분 벽화를 많이 남겼다. 특히 큰 무덤과 내부의 벽화 미술에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백제는 서해에 접해 있어 고구려와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정교함과 부드움, 온화함이 깃든 문화가 특징이며, 일본의 고대 미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요 유로는 서산 마에 여래 삼존상, 무령왕릉 등이 있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하였다. 풍부한 금 생산지를 배경으로 정교한 금속 공을 발달시켰으며, 당시의 생활 모습을 알려 주는 토기 등을 제작하였다. 귀족적이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며, 주요 유물로는 천마총, 금관 등이 남아 있다.



신라 금관총 금관
(높이 27.5cm/
4세기~5세기)



고려 황해도 안악 3호분 묘주상(전실 서벽의 부분/
7년/황해도 안악군 오국리)



백제 무령왕릉의 무덤방 입구에서 발견된
이 동물 조각은 사악한 기운을 막고 무덤을 수호하기
위해 세웠다. 무령왕릉 석수(돌/높이 30.8cm,
길이 49cm/6세기)



고구려 부위에 아궁이와 굴뚝, 가마솥 등이 보인다. 음식을 나르는 여인들이 들고 있는 검은 칠기는 가볍고 튼튼하며 윤기가 있어 당시 금만큼 비쌌다고 한다. 이렇듯 벽화를 통해 의복, 건축, 사용하던 도구, 기르던 동물 등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 황해도 안악 3호분 부위(동쪽 결방의 부분/
357년/황해도 안악군 오국리)

◀ 무용총 벽화(널방 동남벽 부분/5세기경/
중국 지린성 지안시)



삼국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다. 한쪽 다리를 들어 다른 쪽 무릎 위에 얹은 자세(반가좌)에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사유)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반가사유상은 석가모니가 태자 시절에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국 시대에 특히 유행하였다. 이 상은 삼국 중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청동/높이 93.5cm/7세기)